

우크라이나 조종사 러시아 전투기 40대 격추의 진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2022년 개전 초기. 국내 언론과 외신 언론에서 떠들석하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키이우의 유령(Ghost of Kyiv)'이다.

NEWS

Who is the 'Ghost of Kyiv'? Story of Ukrainian ace pilot goes viral

By Evan Simko-Bednarski February 25, 2022 | 11:14am | Updated

Unconfirmed reports of an ace Ukrainian fighter pilot have gone viral, with social media users dubbing the fighter the "Ghost of Kyiv"



Unconfirmed reports of an ace Ukrainian fighter pilot have gone viral, with social media users dubbing the fighter the "Ghost of Kyiv."

Supposedly downing as many as six Russian planes in the first day of combat, the Ghost of Kyiv — and their MiG-29 Fulcrum — quickly became a folk hero in a war breathlessly watched online.

The reports remain unconfirmed by Ukrainian officials — and the rumor is very likely false. The war remains rife with misinformation and propaganda, and a video purporting to be evidence of the Ghost turned out to instead be from a video game.

According to one widely circulated post, the Ghost of Kyiv supposedly shot down four Russian fighter jets — two Su-35 Flankers, one Su-27 Flanker and one MiG-29 Fulcrum — as well as two ground-attack aircraft, so-called Su-25 Frogfoots.



MiG-29 fighter aircrafts fly at a military air base in Vasytkiv, Ukraine

TRENDING NOW
ON NYPOST.COM

47,332

LI woman reveals recent disturbing encounter with Gilgo Beach serial killings suspect, says she filed police report

45,978

Divers encounter enormous 'doomsday fish' riddled with shark bites

31,430

Everything we know about family of 'quiet' Gilgo Beach serial killer suspect Rex Heuermann

Adobe

Creative Cloud로 만드는데 나만의 굿즈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 20+ 앱

구매하기



키이우의 유령을 소개하는 뉴욕 포스트의 2022년 2월 25일자 기사.

아래의 기사링크를 통해 관련 찬양뉴스를 볼 수 있다.↓

물론 국내 언론들 또한 이걸 사실이라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스샷을 보자.

주간동아 | 주간 동아

“러 군용기 21대 격추” 우크라이나의 버팀목 된 MiG-29 ‘키이우의 유령’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입력 2022-03-13 10:15 | 업데이트 2022-03-13 10:30

읽기모드

가 < >

NATO 정보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방공 부대 조력도 한몫



우크라이나 공군 MiG-29 전투기. [뉴시스]



많이 본 뉴스

베스트 추천 뉴스

- 1 대규모 병력 감축 나선 美 해병대... 미국 의존해온 한국 해병대 위기
- 2 男 스태프, 시속 120km 물대포 맞아 사망...워터밤 오사카 공연 취소



은 트래블러스 맵

2023년~2024년상품
오픈, 남미전문인솔

신인균이라는 분은 이렇게 대놓고 키이우의 유령이 우크라이나의 버팀목이라고 찬양했음.

아래의 기사 링크는 여기에↓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313/112303654/1>

5월 2일자 경향신문을 한번 볼까?

'키이우의 유령'으로 불린 전설의 파일럿..."그들은 우크라 마음속에 있다"

입력 : 2022.05.02 22:09 | 수정 : 2022.05.02 22:11 박은하 기자

🔗 📷 📄 📱 📧

우크라이나 공군 소령
스테판 타라발카



지난 3월 러와 교전 중에 전사
러 전투기 40대 격추 영웅담
실존 인물로 떠오르며 주목

우크라군 "영공 수호의 상징"

실존 인물로 떠오르며 주목한다는 보도임

기사 링크↓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205022209015>

심지어 비디오머그는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 홍보함.



종합 많이 본 기사

- 1 추미애-송영길은 왜 저렇
까
- 2 '이건 맞는데, 저건 아니
다?...윤 대통령의 기준
없는 카르텔 찍기



<https://youtu.be/JLo7V5EB-x8>

뉴시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상을 만듦

https://youtu.be/p_V_kZsBBYc

이건 개전 초기 연합뉴스의 헛소리 보도 영상.

<https://youtu.be/j0qlmgx1q4>

그러나 사실은

<https://youtu.be/Xd4bmdNq0Ck>

40대 격추도 전사도 모두 허구라고 스스로 연합뉴스가 나중에 밝히게 됨.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발 가짜뉴스가 떠돌아 다녔을 때, 당시 우크라이나 광신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지?

영웅담만 늘어 놓지 않았나?

사람들이 러시아만 전쟁에서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퍼뜨리면 퍼뜨렸지, 젤렌스키 정부의 언론 보도는 절대 깨끗하지 않음.

이런 정신나간 보도를 믿는 거를 보면,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한 말인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가 떠오르네.